

디자인 경력 30년에 인쇄도 프로

디자인과 인쇄의 조화 통해 세계 일류기업 만들 것

고품질 아트 인쇄로 유명한 해인기획(주) 류명식 사장이 지난 11월 29일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한 예술의전당 서예관에서 열린 (사)한국시각정보디자인협회 정기총회에서 협회 6대 회장에 취임했다. 인쇄인, 디자이너, 대학교수 등 이색 경력 소유자인 류명식 사장을 만나 인쇄와 디자인 그리고 그가 향후 2년간 이끌어갈 (사)한국시각정보디자인협회(Visual Information Design Association Korea, 이하 VIDAK)에 대해 들어왔다.

디자이너에 대한 인식 바꿀 것

인쇄인, 대학교수, 디자이너 그리고 VIDAK 회장. 류명식 사장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많은 일들 때문에 그를 만나는 일은 꽤나 어려운 일이다.

12월 2일에 찾아간 해인기획(주)사무실. 인터뷰 도중에 걸려오는 무수히 많은 전화가 그가 맡고 있는 다양한 일의 종류를 가늠케 했다. 1시간 여 동안 걸려온 셀 수 없는 전화 중 가장 많이 걸려오는 것은 최근에 맡은 VIDAK 관련 전화였다.

11월 28일에 총회에서 정식으로 회장으로 취임했지만 류 사장의 VIDAK 회장 당선은 이미 2년 전 2002년 12월 1일 같은 장소에서 개최됐던 VIDAK 정기총회에서 결정됐다. 2년 전 정기총회에서 회장에 내정되었지만 회장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준비기간을 2년으로 두고 있는 VIDAK 내부 규정상 지난 29일 가진



2003년 정기총회를 통해 회장에 취임한 것이다.

VIDAK은 1994년 6월 18일 300여명의 발기인들이 모여서 만든 디자인 관련 단체로 시각디자인관련 전공자, 대학교

수, 현장 디자이너, 기업체 소속 디자이너 등 2003년 12월 현재 754명의 일반 회원과 174명의 학생회원이 가입해 있다.

VIDAK은 설립목적에 '회원의 권익옹

호와 정보교류 및 친목을 통한 시각 디자인 진흥을 꾀하며 정보화 다 매체 시대에 있어서 국가 산업의 경쟁력과 디자인 문화를 향상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데 적극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가히 디자인 관련 업계를 대표 할만한 조직이다. 지금까지 회장을 보면 조영제 전 서울대교수, 권명관 현 홍익대 부총장, 김광현 한양대 교수, 안상수 현 홍익대 교수, 구동조 전 동덕여대 교수 등이 있었다.

역대 회장들은 주로 대학교수들이 맡아왔다. 물론 류명식 사장은 지난 86년부터 명지전문대 시각디자인과 강사를 역임한 이래 경원대, 동덕여대, 단국대, 한성대를 거쳐 지금은 홍익대 대학원 겸임교수로 재직 중이지만 교수라고 하기보다는 현업 디자이너로 분류되고 있어서 현직 디자이너가 VIDAK의 회장으로 취임하기는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다.

류명식 사장은 취임 소감에 대해 "마음의 부담이 상당히 크다. 디자인이 가지는 사회적 위상이 중요 시되지 않는 등 국내 디자인 환경에 많은 문제가 있다. 우선 디자이너가 전문인으로 대접받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급선무인데, 내년 VIDAK 창립 10주년 행사를 통해 디자인에 대한 일반적인 관념을 바꾸는 일부터 시작할 것" 이라고 말했다. 디자이너이면서도 인쇄업을 영위하는 류명식 사장의 예를 빌리지 않더라도 인쇄와 디자인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양 진영이 가지는 밀접한 관계만큼이나 애증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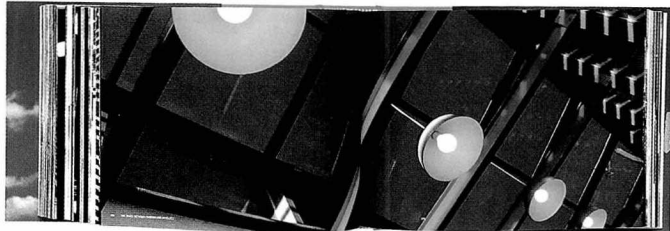
디자이너의 한(恨) 내가 인쇄에 봐~

류명식 사장이 인쇄업에 뛰어든 이유도 바로 댐해야 댐 수 없는 인쇄와 디자인의 애증 관계에서 시작됐다.

류 사장의 디자인 경력은 40년 가량을 거슬러 올라가는데 이미 70년대 초반 서

울예술고등학교 시절부터 포스터 제작으로 디자인 분야에서 남다른 수완을 보이기 시작했다.

당시 응용미술을 전공하던 류 사장은 선후배들의 공연 포스터를 곧잘 제작해 대학도 홍익대응용미술학과(74학번)에 입학, 도안(당시로서는 시각디자인이란 과



◆ 해인기획에서 제작한 서적들



과거의 인쇄가 단순히 정보를 보관하고 전달하는 역할만 했다면 지금의 인쇄는 감성적인 부분에 호소하고 있다. 인쇄에 있어서 디자인의 역할이 점차 커져가고 있는 셈인데 생산성만 가지고 인쇄를 이야기하던 시대는 지나갔다. 디자인을 강조하는 시대가 다가올수록 인쇄 품질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는 더욱 까다로워질 것이다.



목이 없었음)을 전공했다.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는 해태제과 포장 디자인 부서를 거쳐 합동통신사 디자인 팀, 오리콤 디자인팀 등에서 경력을 쌓은 후 78년도에 충무로 인근에서 '홍성기획' 이라는 디자인 회사를 창업하기에 이

른다.

'홍성기획'은 류 사장 개인 회사가 아닌 동업의 형태로 꾸려가던 회사로 이후에도 희명기획, (주)동양선전 등에서 공동 출자의 형태로 디자인 회사를 운영해왔다.

1985년에는 지금의 해인기획을 설립하게 되는데 당시에는 인쇄가 아닌 디자인전문 회사였다. 류 사장의 인쇄에 대한 경력이 쌓이고 혼자만의 길을 걸어가면서 인쇄업체와의 애증이 시작된다.

"디자이너의 창작력이 보여지는 것은 결국은 인쇄인데, 당시엔 뭐 인쇄기계도 지금처럼 좋지도 않았고, 오퍼레이터의 수준도 그리 높진 않았다. 마음이 압박해서 최종 결과물인 인쇄물이 나오는데 이 건 내가 애초에 기획했던 작품이 아닌 경우가 허다했다. 고객들에게 보여주면서 인쇄가 잘 못돼서 라고 말하면 씨알도 안 먹히고... 옆에 붙어서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하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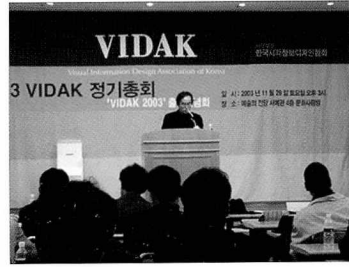
못하고, 지금처럼 레이저 프린터도 없는 상황에서 디자이너의 마지막 표현 방법은 좋은 품질을 장담할 수 없는 인쇄밖에 없었다"

여러 번의 반목 끝에 류 사장은 직접 인쇄업을 경영하는 방법을 선택하고 87년 자신이 그토록 믿지 못하던 인쇄업체에 뛰어들게 된다.

현실과 이상의 차이

모든 게 그렇지만 밖에서 바라보던 것과 안에서 바라보던 인쇄는 많이 달랐다.

"밖에서 보기엔 솔직히 쉬워 보였다. 하지만 그 쉬워 보이는 일들이 회사의 영업 이익보다는 디자인을 우선시 하겠다는 오너의 의지만으로 해결되지 않았다. 당시로서는 그리 발전하지 않았던 오퍼레이터의 기술수준도 문제가 됐고, 인쇄기의 표현 능력도 문제가 됐던 것 같다. 아무튼 수요자의 입장에서 볼 때와 달리 내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산재해



지난 11월 29일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한 예술의 전당 서예관에서 열린 (사)한국시각정보디자인협회 정기총회 모습들. 사진 맨 오른쪽은 새 임원진을 발표하고 있는 류명식 회장.

있었다”

당시 회사의 손익계산보다는 디자인을 우선시 하겠다는 욕심으로 창업한 류 사장이 처음 접한 인쇄기는 일본의 모 회사 인쇄기였다.

국내에서는 보급이 얼마 되지 않던 기계로 가격은 저렴한데 류 사장이 원하는 고 품질 인쇄를 실현하기에는 약간의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 해당 기계 두 대가 해인기획(주)를 거쳐갔다.

옆에서 보아온 손쉬운 인쇄 때문에 류명식 사장은 초창기 많은 손해를 봤다. 그도 그럴 것이 인쇄업에 발을 들여놓았지만 업계에 인맥이 전무하다시피 하던 관계로 하청 일이라도 따내기가 쉽지 않았으며, 디자인과 질로 승부하려던 욕심은 주변 사정으로 인해 쉽지 않았으니 손해를 보는 건 당연지사였다. 이런 저런 이유로 인해 디자인 파트에서 얻어지던

대부분의 수입은 타 업체에 비해 떨어지는 인쇄 마진을 채우는 일과 리스료를 부담하는데 쓰여지기 일수였다.

어려움이 있었지만 비용보다는 질을 우선시 하는 사진작가라든지 디자인 계통 종사자들의 인쇄발주,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디자인을 자신의 욕심대로 뽑을 수 있다는 희열이 류명식 사장의 버팀목이었다.

인쇄의 생존 키워드는 '생산성' 아닌 '품질'

품질 경영에 대한 오너의 마인드 때문인지 해인기획(주)의 최근 경영실적은 류명식 사장이 초창기 멋모르고 발을 들여놓았을 때와 비교해 몰라보게 좋아졌다.

디자인 회사가 아닌 인쇄회사로서 해인기획(주)의 가치를 키워준 것은 회사의 크기도 아니고, 높은 생산성도 아닌 품질 경영 단 한가지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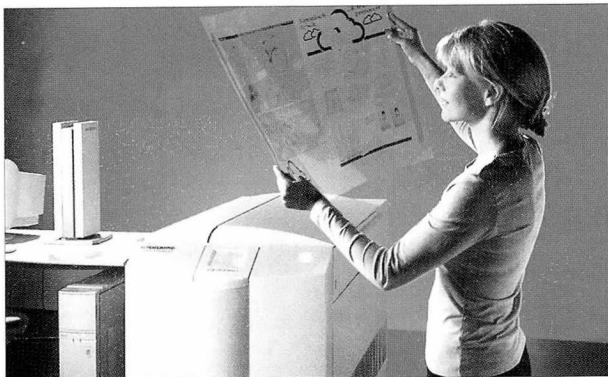
류명식 사장은 “과거의 인쇄가 단순히 정보를 보관하고 전달하는 역할만 했다면 지금의 인쇄는 좀더 감성적인 부분에 호소하는 인쇄가 되어가고 있다. 인쇄에 있어서 디자인의 역할이 점차 커져가고 있는 셈인데 이러한 경향에 비춰보더라도 생산성만 가지고 인쇄를 이야기하던 시대는 지나갔다. 디자인을 강조하는 시대가 다가올수록 인쇄 품질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는 더더욱 까다로워 질 것”이라며 추후 인쇄사의 생존 키워드는 ‘품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쇄기의 수준이 점차 좋아지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도 인쇄와 디자인의 보이지 않는 반목은 계속되고 있다.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은 디자인이면서 인쇄인인 류명식 사장의 존재의 이유가 더욱 분명해진다.

〈이용우 기자〉

홈페이지 : www.newskp.co.kr

부가가치 창출! '투자비 절감' 이 관건입니다



고가의 장비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중고기기로도 훌륭한 제품을 생산하고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중고인쇄기기 및 프리프레스 장비 전문공급 업체인 뉴에스케이피와 상의 하시면 그 길이 보십니다.”

(주)뉴에스케이피

서울시 중구 필동2가 16-24 남지빌딩 401
전화 : 2279-0919 팩스 : 2271-1221
홈페이지 : www.newskp.co.kr

취급
품목

각종 인쇄기 · 컴퓨터기기 일체
프리프레스장비